



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e have, in fact, two kinds of morality side by side: one which we preach but do not practise, and another which we practise but seldom preach. Christianity had in the early centuries that emphasis on individualism and other-worldlin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octrine of non-resistance was intelligible. But when Christianity became the nominal religion of energetic European princes, it was found necessary to maintain that \_\_\_\_\_ . In our own day, under the influence of competitive industrialism, the slightest approach to non-resistance is despised, and men are expected to be able to keep their end up. In practice, our effective morality is that of material success achieved by means of a struggle; and this applies to nations as well as to individuals. Anything else seems to us soft and foolish. [3점]

- ① religion should not irritate politics
- ② some texts were not to be taken literally
- ③ they should use the religion more ideally
- ④ the purity of Christianity should be intact
- ⑤ Christianity should be not for practice but preach



## 햇설

### 지문분석

① We have, in fact, two kinds of morality side by side: one which we preach but do not practise, and another which we practise but seldom preach.

사실, 우리는 나란히 두 가지 종류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설교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실행하지만 좀처럼 설교하지는 않는 것이다.

\*무엇이: 도덕성이

어떠하다: 실행과 설교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preach Vs practise의 대조가 나왔으니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② Christianity had in the early centuries that emphasis on individualism and other-worldlin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octrine of non-resistance was intelligible.

기독교는 초창기에 개인주의와 비세속적인 것에 대한 강한 강조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무저항주의의 원칙이 이해될 수 있었다.

\*①의 도입부에서 도덕성을 실행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무저항주의의 원칙'을 그 둘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해본다. 하나의 지문은 하나의 유기체다!

\*개인주의와 비세속적임, 그리고 무저항이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혼자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저항주의는 '설교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주의, 비세속적인 것을 강조했던 초창기의 기독교는 '설교는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③ But when Christianity became the nominal religion of energetic European princes, it was found necessary to maintain that \_\_\_\_\_.

그러나 기독교가 열정적인 유럽 군주들의 명목상의 종교가 되었을 때, \_\_\_\_\_ 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but의 역접에 주목하라. 대조의 지문이었기에, 이제부터 실행에 강조점을 둔 도덕성이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preach와 practise의 대조 관계에서 'energetic'은 'practise'에 또한, 기독교가 nominal religion이 되었다는 것에서도 종교가 preach보다 practice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가 군주들의 nominal religion이 된 이후에는 어떤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을까? 결국 역접의 흐름대로라면 빈칸에는 '실행이 중요한 종교'가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기독교의 대표로 '무저항주의'를 디테일로 들고 있으니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빈칸에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④ In our own day, under the influence of competitive industrialism, the slightest approach to non-resistance is despised, and men are expected to be able to keep their end up. In practice, our effective morality is that of material success achieved by means of a struggle; and this applies to nations as well as to individuals. Anything else seems to us soft and foolish.

현재, 경쟁적인 산업주의의 영향 하에, 무저항주의에 대한 나약한 접근은 경멸되고 있고, 인간은 자신들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는 도덕성은 투쟁이라는 수단으로 달성되는 물질적 성공의 도덕성이며 이것이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 밖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무저항주의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를 이해하면 빈칸에 들어가는 논리 방식에 대해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산업주의의 영향으로 무저항주의는 경멸되고 이것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며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실행이 극도로 중요해진 사회가 되었다는 이야기.

### 선지분석

#### ① religion should not irritate politics

종교가 정치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 본문에 따르면 energetic한 군주들이 설교용이던 기독교의 실행용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답.

#### ② some texts were not to be taken literally

몇몇 구절들은 글자 그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 군주들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의 본질인 성서 자체에 쓰인 무저항의 원칙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실행적 도덕성이 군주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할까. 바로 해석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구절들이 글자 그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무저항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흐름과 일치. 정답.

#### ③ they should use the religion more ideally

그들은 기독교를 보다 이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이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과 반대. 이상적이라는 말은 원래 그대로 무저항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오답.

#### ④ the purity of Christianity should be intact: 기독교의 순수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 기독교의 순수성은 무저항주의 원칙이며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본문의 흐름과 반대. 오답.



### ⑤ Christianity should be not for practice but preach

기독교는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역시 당시의 군주들의 상황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 오답.

### 플이총평

도입부에서 준 대조를 활용해야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새롭게 등장한 non-resistance의 정체를 파악하게 한다. 특히 도입부에서 나온 morality가 뒤에서는 non-resistance라는 친절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글의 유기성을 전제로 스스로 파악해내야 한다. 또한 non-resistance가 대조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아내고, 이후에도 대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 안에서 사고해야 가능한 일이다.